

“대승보살 운동만이 한국불교 희망”

인드라마 · 실상사 화림원, 제11차 화엄광장 열어

“대비원력이 있어야 현실에서 수행과 일상의 삶이 일치되는 역동적 실천이 이뤄진다.”

인드라마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와 남원 실상사 화림원(원장 해강)은 7월 3일 서울 양재동 인드라마 공동체 교육관에서 ‘新대승불교 운동을 제안한다’를 주제로 제11차 화엄광장을 개최했다.

해강 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화엄광장은 법인스님(실상사 화엄학림 학장)과 이평래 교수(충남대학교)를 좌장으로 도법 스님과 금강 스님(미황사 주지), 우희종 교수(서울대학교),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안성두 소장, 한겨레신문 조현종 교전기자들과 함께 열린 토론을 벌였다.

도법 스님은 ‘대승 정법의 등불 新대승불교운동을 제안한다’라는 발제문을 통해 “한국불교는 부처님, 대승 보살, 대승 선사들에 의해 빛을 발한 정법의 등불인 대승불교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왔다”고 전제하고 “현 한국불교의 암담한 현실이 ‘자리아타(自利利



7월 3일 서울 인드라마생명공동체 교육관에서 열린 제11차 화엄광장 모습.

他)를 ‘불일불이(不二)’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대승정법불교의 수행론과 불교관을 제대로 이해 실천하지 않고 있다”고 현 한국불교를 비판했다.

도법 스님은 한국불교의 위기를 “대승불교로 표현되어지는 정법불교의 사상과 정신을 잃어버리고 대승불교 정신에 입각한 발심, 즉 대비원력(大悲願力)이 확립되어있지 않다. 대비원력이 없으니 현실에서 수행과 일상의 삶이 일치되는 역동적

실천이 나오지 않는다”며 “위법망구(爲法忘軀)의 삶에 인생의 열정을 불태우 대승보살 운동만이 한국불교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대담자로 나선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은 “한국불교는 지나치게 내부문제에 천착해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없다”며 “행정중심이 아닌 포교와 교육이 중심이 된 21세기 한국불교의 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희종 교수는 “대승불교운동의 ‘대비원력의 발심행자’를 앞으로 어떻게 하면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 속에서 양성하고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다양하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발심행자의 서원과 참여를 뒷받침할 만한 한국불교의 구조적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뼈아픈 변화와 실천적 수용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 한겨레신문 기자도 “한국불교는 관념 속에 갇혀 있었다”며 “현대사회의 문제를 서로 치유하고 상생하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두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장은 “대승불교의 시작은 치열한 깨달음에 대한 갈망에서 시작되었다”며 티벳불교의 수행자 밀레페빠의 예를 들며 “깨달음을 위해 치열하게 수행하는 승가의 모습과 모델을 정립하는것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12차 화엄광장은 9월 26일 남원 실상사에서 ‘처처가 깨달음의 도량’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월주스님 초청법회 실상사 화엄학림 지구총공생회에 후원금



남원 실상사(주지 재현)는 7월 8일 중창불사 1000일 기도 중 800일을 맞아 지구총공생회 이사장 월주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 자리에서 실상사 화엄학림 스님들은 국제구호사업에 써달라며 틈틈이 모금한 후원금 500만원을 지구총공생회에 기탁했다. 지구총공생회는 이날 전달받은 후원금을 네팔의 교육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지구총공생회는 2003년 설립돼 캄보디아, 라오스, 스리랑카, 미얀마, 몽골, 네팔, 케냐에서 우물 개설, 교육센터 운영 등 식수 및 교육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성품 깨달아 성불하기를 발원” 제주 대원암 ‘도민 안녕 위한 방생법회’

제주 대원암(주지 법산)은 7월 7일 ‘제주도 발전과 도민 안녕을 위한 방생법회’를 봉행하고, 소년소녀 가장에게 자기 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도문 스님(조계종 원로의원), 봉암 스님(일통선교종 중징)을 비롯해 한명옥 회장(웅성진 중조사 유훈실현후원회), 이치란 박사(조계종 국제교류위원)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다를 돌고 1500여 마리를 방생하고, 영산작법 의식과 수륙대재도 함께 봉행했다.

이날 도문 스님은 법문을 통해 “많은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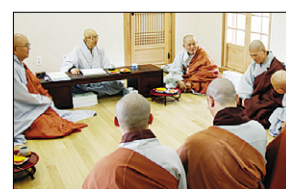
부처님과 용왕들에게 중생의 풍요로움을 기원드린다”고 말하고 “모든 중생이 저마다의 성품을 깨달아 성불의 인연을 맺기를 발원한다”고 말했다.

법문에 앞서 대원암 주지 법산 스님은 대원암 관내에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장에게 장학금과 생필품을 전달하며 “청소년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사회의 참다운 일원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 대원암은 국제 전법사 양성을 위한 ‘제주 국제불교자유대학’을 설립하고 9월 3일 개강을 앞두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지관 스님, 백양사 운문선원에 대중공양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7월 8일 고불총림 장성 백양사(주지 사공)를 방문해 하안거 기간동안 정진중인 20여 운문선원 수좌들에게 대중공양했다(사진).



이날 지관 스님은 대중공양에 앞서 백양사 방장 수산 스님, 주지 사

공 스님, 유나 지선 스님, 운문선원 선원장 동참 스님, 강주 응각 스님, 총무국장 법신 스님과 차담을 나눴다.

지관 스님은 이에 앞서 지난달에 도 문정 봉암사 방문 정진중인 선원 수좌들에게 대중공양을 올렸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지친 심신 나들이로 달래주니 즐거워요”

시골 어른들이 지역복지관의 도움으로 오랜만에 여행길에 올랐다.

전북 고창군노인복지회관(운영위원장 법만, 관장 무궁)은 7월 7일 고창지역 어른신 350여 명과 함께 담양 죽녹원과 여수 오동도를 여행하는 제2회 복은 어른신 나들이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소외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돼 나들이 기회가 부족한 노인들이 고립된 일상에서 벗어나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했다.

고창복지관, 복은 어른신 나들이



고창노인복지관이 7월 7일 가진 어른신 나들이 행사.

장맛비가 이어지는 가운데에도 어른신들은 대나무의 숲결이 살아있는 죽녹원의 대나무박물관에서 죽향의 신선함을 몸소 느꼈고 여수 오동도 해양박물관을 방문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사진촬영을 하는

등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변영철(71·고창군 고창읍) 어른신은 “몸이 불편하고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아 여행 가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노인복지회관에서 마련한 나들이 행사로 모처럼 즐거웠다”며 노인복지회관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고창노인복지회관 관장 무궁 스님은 “행사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선운사 법만 스님과 후원회, 자원봉사자분들께 깊이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자비신행회 부설 자비나눔봉사단 정응운 단장

“남은 인생 봉사하며 나누고 싶어요”

불교에서는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며 괴로움을 없애는 일을 자비(慈悲)라고 한다. 지혜(반야)와 더불어 불교 수행자라면 가장 중요한 수행의 2대 덕목에 해당된다.

세계적으로 불교적 이념을 실천하는 가장 큰 봉사단체를 말한다면 대만 자제공덕회를 들 수 있다. 전세계 200만 자원봉사자를 통해 불교의 자비정신을 구현하는 단체이다.

빛고를 광주에도 1999년 이런 자비정신을 모태로 자비신행회라는 수행공동체가 탄생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자비신행회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자비의 도시락과 밀반찬 보내기사업, 생활지원사업, 찾아가는 심시일반발자, 무료식당 등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한꽃의국인노동자센터, 한꽃꽃문화아카데미, 시민선방 운영, 불교전문교육기관 화엄학림과의 장학사업 등의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데는 전문적인 자원봉사조직이 필요하다. 그 역할을 하는 단체가 바로 자비나눔봉사단이다. 정응운 단장은 자비나눔봉사단을 이끄는 선장과의 같은 역할을 한다.

“최근 몇 년간 강원도 폭우와 태안 기름유출사건 같은 큰 재해가 있었다. 비록 ‘자지만 강한 봉사조직’이 있었기에 밭 빠르게 도와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



자비를 생활에 실천하는 방법을 체득한 지금이 그는 마냥 행복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남을 돕는 생활을 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정년퇴임 전 그는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24시간 범죄자들과 싸우면서 생활을 하는 수사경찰이었다. 입에서는 항상 범죄자를 제압하고자 욕을 받고 싶었고, 마음은 언제나 그들과 같이 격해 있었다.

그런 그가 불교에 입문을 하고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가치관과 삶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다.

“불교입문 후 5년간은 너무 힘들었다. 5계를 수지하면서 무

척이나 방향을 하고 고민을 했다” “내가 과연 5가지의 계율을 지킬 수 있을까?” 그의 뇌리에 늘 이런 고민을 달고 살았다.

하지만 그는 본래 갖고 있는 불성을 발견했다. 늦게 고향에 돌아오는 듯 편안하고 즐거웠다. 그 후 정응운 단장 부부는 생량나눔 실천회를 통해 장기기증을 신청하고, 불교봉사조직에 투신한다.

겨울이면 독거노인을 위해 연탄 배달을 하고 김장김치를 나누는 다. 노인이 가장 많이 모이는 광주광역시에서는 점심 봉사, 동지에 동지죽을 나누고, 추석에는 회원들과 같이 추석선물을 들고 어른신들 집집마다 방문을 한다. 정응운 단장은 늦게 돌아와 고향에서 찾은 향기로움 삶이자, 행복한 삶이다.

“남은 인생을 작은 실천이지만 봉사를 하면서 살고 싶다”는 것이 정 단장의 마지막 소망이라 한다. 현재 자비나눔봉사단에는 1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100개의 손이 움직이는 관세음보살이다. 이제 광주에서도 광주를 대표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봉사단체가 필요하다. 자비신행회에 더욱 큰 활동을 기대하는 이유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현대불교 현불샵

생활도자기 특별기획전

전화주문 ☎ 02)2004-8215~6

도자기의 본고장 경기도 이천에서 도자기의 생활화를 목표로 순수자연원료로 제작된 도자명품 생활자기입니다. 우리 도자기의 품질로 완성된 생활 명품입니다. 도자기 접시와 찻잔(머그잔, 커피잔), 다완, 퇴수기, 화병, 화로 등 다양하고 품격 높은 생활자기는 불자들의 생활을 더욱 향기롭게 할 것입니다.

- 퇴수기는 흔히 물버림 사발이라고도 하며, 버리개라고도 합니다. 다완과 잔을 대운 물을 버리거나 다완을 열어 찌꺼기를 버리는 그릇입니다. 입구가 넓으면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3단도라지꽃합접시 대 20,000원/중 10,000원/소 5,000원	 동근3꽃접시3종세트 판매가 35,000원	 4발접시 판매가 45,000원	 검정사각원꽃접시 판매가 45,000원
 청자수반퇴수기 판매가 50,000원	 분청퇴수기 판매가 80,000원	 이도담범퇴수기 판매가 40,000원	 분청동그리화병 대 40,000원 / 소 20,000원
 분청하얀꽃화병 대 60,000원 / 소 40,000원	 벗티화병 대 100,000원 / 소 80,000원	 보라꽃커피잔 판매가 18,000원	 카키색흰물고기찻잔 판매가 8,000원
 카키색도라지꽃찻잔 판매가 16,000원	 백자도라지꽃찻잔 판매가 16,000원	 하트모양커피잔 판매가 15,000원	 연꽃백자커피잔 판매가 18,000원

현대불교@잘러

www.HyunbulShop.com

이외 다양한 상품은 현불샵(www.hyunbulshop.com)에서 만나보세요.